

■ KS 이모저모

●...4일 대구구장에서 개막된 한국시리즈(KS) 1차전 애국가는 가수 벤이 불렀다. 벤은 최근 KBS2TV '불후의 명곡'에서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KS 1차전 시구는 여성 스포츠 지도자인 홍양자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홍 교수는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야구팀에서 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삼성 외야수 김현곤(26·사진)이 KS 1차전을 앞두고 대구구장에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 선수단의 훈련이 모두 끝난 뒤에 쑥스럽게 웃으며 덕아웃을 지나쳐 선수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백팩을 메고 한손에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김현곤은 이날 열린 상무의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구단의 양해를 얻어 문경의 국군체육부대에서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팀에 합류했다.

●...넥센 염경엽 감독은 KS에 앞서 '삼성 타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타자'로 "1번 나바로와 4번 최형우"라고 말했다. 염 감독은 "삼성전에서 두 선수에게 많이 맞았다"면서 "특히 최형우에게 결정타를 많이 맞았다"고 말했다. 염 감독은 LG와의 PO에서는 정성훈, 스나이더, 최경철을 요주의 인물로 꼽은 바 있다.

●...한국시리즈에서 맞서는 삼성과 넥센의 선발투수가 베일을 벗었다. 류중일 감독은 "다승 순으로 선발투수를 결정했다"고 웃으며 4선발을 모두 공개했다. 삼성은 릭 밴덴헐크를 시작으로 윤성환과 장원삼, 제이디 마틴이 나란히 등판한다. 5선발 배영수는 불펜 대기한다. 넥센은 플레이오프와 동일한 로테이션이다. 앤디 밴 헤켈을 축으로 헨리 소사와 오재영이 등판한다. 4차전은 다시 밴 헤켈이 등판한다.

●...KS 1차전이 열린 4일 대구구장은 입장권 1만장이 매진됐다. KS 2007년 10월 25일 잠실 SK-두산 KS 3차전 매진 이후 KS 39연속경기 매진을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올해 포스트시즌 누적 관중수는 총 15만152명으로 늘어났다.



야구팬들이 4일 대구 시민야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넥센의 한국시리즈 1차전을 보기 위해 길게 줄 서었다. 표는 이미 매진됐지만 혹여나 나올 예약취소 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대구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erine007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SK, FA 최정에게 75억+α 베티한다

(강민호 FA 사상 최고액)



을 스토브리그의 FA 최대인 SK 최정이 해외진출을 접었다. SK는 최정이 잔류한다면 역대 최고대우인 '75억+일파'를 보장해 줄 것으로 전해졌다. 야구계에선 최정이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100억 계약을 탄생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해외 진출 접자 'FA 최고대우' 내부방침
통산타율 0.292...3루 수비능력 톱클래스
야구계 "사상 첫 100억 계약도 가능하다"

"최정이 SK에 남는다면 몸값은 75억+α!"

SK 3루수 최정(27)이 해외진출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는 "역대 프리에이전트(FA) 최고대우로 최정을 붙잡겠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복수의 SK 관계자는 4일 "최정은 해외로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SK는 10월17일 정규시즌이 끝난 뒤, 최정을 비롯한 자체 FA들과 만남을 가졌다. 시기가 워낙 빨라서 구체적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SK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의사표시는 전할 수 있는 자리였다.

SK 민경삼 단장과 진상봉 운영팀장은 시차를 뒤가며 최정, 외야수 김강민과 외야수 조동화 등 자체 FA 빅3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FA를 거의 잡지 못했다'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기에 이번 FA 시장에서는 행보를 빠르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는 대상은 단연 최정이다. SK가 가장 우려한 것은 국내 타 구단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구단들이었다. 특히 최정은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에이스 김광현의 에이전트인 맬빈 로만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5월부터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최정이 '해외로 가지 않겠

다'는 의사를 SK에 전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SK의 구애가 뜨거웠다는 방증이다. SK 핵심 관계자는 4일 "최정은 반드시 잡는다. SK에 남는다면 롯데 강민호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답했다.

강민호는 2013년 11월 롯데와 4년 총액 75억원의 FA 사상 최고액 계약을 터뜨렸다. 그러나 옵션 등 실수령액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 야구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SK가 최정의 몸값으로 '75억 플러스알파'로 설정해놓은 것을 최초 확인해준 셈이다. 야구계에서는 최정을 두고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100억 계약을 탄생시킬 수 있는 선수'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

최정은 올 시즌 잦은 부상 속에서도 82경기에서 타율 0.305 14홈런 76타점을 기록했다. 수위 유신고를 졸업하고 2005년 데뷔 이래 10시즌에 걸쳐 통산 168홈런 634타점, 타율 0.292를 기록했다. 2006년부터 두 자릿수 홈런을 꾸준히 기록한 중장거리 타자로서 '현역 우타자 중 가장 완벽한 타격폼을 갖고 있다'는 찬사를 듣는다. 게다가 프로야구 최고 레벨의 3루 수비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직 나이가 27세밖에 되지 않아 잠재력이 넘친다. SK가 "신생팀 kt를 비롯한 어떤 팀에도 최정을 뺄 수 없다"고 구단 자존심 차원에서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결혼 준비 바쁜 민병헌, 마무리캠프 간다

정규시즌 휴식일에도 땀뻘뻘 훈련신봉자
'땀은 배신 않는다' 11월 캠프 참가 자청

두산이 김태형 신임감독의 진두지휘 아래 5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한다. 캠프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자기관리가 되는 고참급들이다. 여기에 김 감독은 부상이나 쉬어야 할 선수들은 의견을 전달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배려했다.

민병헌(27)도 시즌 내내 허리가 좋지 않아 마무리캠프에 제외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게다가 12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민병헌은 마무리캠프를 자청했다. 그는 4일 "12월 한 달간 휴식이 주어지는데 11월도 쉬면 안 될 것 같다"며 "개

인적으로는 마무리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선수가 2~3달을 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병헌은 훈련신봉자다. 그는 정규시즌 중에도 유일하게 주어지는 휴식일인 월요일에도 빠짐없이 구장에 나와 방망이를 휘두르곤 했다. "감이 좋을 땐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격이 맘대로 되지 않을 땐 감을 다시 찾기 위해서" 심 없이 구슬땀을 흘렸다. 훈련 땀은 배신하지 않았다. 민병헌은 올해 타율 0.345에 162안타를 때려냈고, 12홈런, 79타점 등 타격 전반적인 지표에서 커리어하이를 기록했다. 덕분에 생애 첫 올스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맹활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한 리

드오프'라는 새로운 1번타자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비록 두산의 야구는 정규시즌으로 끝났지만, 민병헌의 야구는 시즌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시즌 종료 후 이를 만개 구장에 나와 웨이트트레이닝으로 몸을 만들기 시작해 지난달 28일부터 재개된 팀 훈련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물론 12월에도 개인훈련을 하지만 팀 훈련을 할 때와는 또 다르다. 팀 훈련은 심 없이 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며 "마무리캠프에서 훈련을 많이 하겠지만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한다. 연습 때 공을 똑똑 맞히면 자기도 모르게 그제 몸에 배 실전에서 똑똑 치게 된다. 공 한 개를 치더라도 집중력 있게 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두산 민병헌의 야구는 겨울에도 계속되고 있다. 민병헌이 5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마무리캠프에 자청해 참가한다.

사진제공 | 두산베어스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매일경제 2014. 1. 29)

동물에 먹이는 "항생제" 인체에도 영향 미친다 (국민일보 2014.03.0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8097884&cp=nv>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매일경제 2014.01.2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3209>

항생제 과다투여 생닭 파문 ○○○ 공식 사과 (SBS 2013. 01. 11)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1576823

"친환경닭이 특별한 이유" (2011.5.9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702&idxno=436138>

"가축사료에서 항생제를 몰아내야 하는 이유" (2010.8.9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69253&cloc=olink|article|default

"즐거먹는 통닭은 항생제 덩어리?" (2010.7.25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2509393784080>

"항생제 전혀 안 쓰고 기른 닭, 조류인플루엔자도 열씬 못해" (2009.11.2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745455&code=950312

자연은 담은
착한이야기 캠페인,

1.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2. 음식점의 위생불량
3. 식당, 술집 공기오염 노출 높아
4. 치킨무 실체공개
5. 충격적인 생맥주의 비밀
6. 가루, 알고보니 발암물질 우글

